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7 No. 2 2017. 6. 25
편집: 홍보 위원회



VBS 여름성경학교
2017년 6월 26일(월)~ 29일(목)
수축 5:00 ~ 7:30

2017
JUNE

당회소식
KCB 서울 코이노니아
위원회소식
부서소식
동북대회여선교회 수련회
어머니주일 찬양제
쉐마의 밤
새교우 환영반
화보

권두언

이영길 목사

파리 여행 유감

안식월 기간 중 두번째로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가 보신 분들로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중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책을 봐도 곳곳에 조심하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도착한 첫 날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말을 겁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이 저에게 ‘소매치기’ 라고 말해 줍니다. 놀래 멀리 걸어 갔습니다. 얼마 후 또 비슷한 여인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첫 날부터 저의 안테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이 되었습니다. 관광을 하고 방에 들어 왔는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이웃을 경계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훔쳐가려면 훔쳐가라지.” 남은 4일은 아주 신나는 관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도 당하지 않고...

벌써 올해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후반기를 호탕하게 사십시다.

Editors:
김한나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당회 소식

당회 서기 한승희 장로

1. 2017 년도의 국내 단기선교단 (13 명 참가 예정)을 New Mexico 의 Ojo Encino Community (Navajo 부족 보호 구역) [7 월 27 일(토) ~ 8 월 5 일(토)]; 총 예산액= \$16,895]로, 그리고 해외 단기선교단 (13 명의 Medical & Education Teams= 9 명 (KCB) + 3~4 명 (Primera Iglesia 교회) [7 월 27 일(토) ~ 8 월 5 일(토)]; 총 예산액= \$25,000] 을 Guatemala 로 각각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당회는 본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및 교육목사(보스톤 노회 소속)를 제외한 모든 유급 (part-time) personnel 의 severance pay policy 를 재검토 및 성문화 하는 작업을 인사위원회에 일임하여 다음 당회시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당회는 보스톤 노회가 주관하여 노회 총무, 퀸시 영생장로교회 대표 들과 함께 모이는 Boston Presbytery Vision Sharing Conversation 모임에 (6월 13일 오후 7시) 윤경문 부목사, 한승희 당회서기 장로, 김세철 장로 및 김한나 피택장로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식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유택 장로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

국내선교 위원회에서는 오는 7 월 29 일 토요일 부터 8 월 5 일 토요일까지 뉴 멕시코 주 나바호 (드네) 부족 보호구역 (Cuba, Ojo Encino Community)에서의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 멕시코의 나바호 인디안 보호 구역에서 나바호 인디안들을 섬기고 계신 이덕재 선교사님을 도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문화 사역을 통해 한국문화와 나바호 문화를 함께 나누고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내의 국내선교 프로그램의 기반 (플랫폼)을 마련하고, 주님으로 부터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교우들의 폭 넓은 참여의 기쁨을 마련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내의 다양한 연령층 (청소년 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시니어 그룹에 이르기까지)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교회 사역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지난 5월 7일 1차 선교 기금 마련 김밥 바자를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김동규, 이해원 집사님을 선교팀 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선교 팀과 약 6명의 선교 지원팀들이 각각의 책임을 위해서 선교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김종희 권사, 이경자 권사, 김동규 집사, 최지상 목사, 이해원 집사, 조나현 교우 (청년 2부), 정윤원 교우 (청년 2부), 김소정 교우 (청년 1부), 이주비 (중고등부), 안현준 (중고등부), 정종인 (중고등부), 이하은 (중고등부), 이하운 (중고등부)입니다. 보스턴에서 선교팀을 지원하는 팀은 이유택 장로, 이선영 장로, 윤경문 목사,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유승오 집사입니다.

지난 12월 1차 국내선교팀의 단기선교 프로그램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시어 뉴 멕시코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었습니다. 오는 2차 선교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팀을 떠나 보내는 선교 지원의 훈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올해는 국내/해외선교 미션 theme 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국내/해외 선교가 같은 미션 theme 을 갖고, 같이 훈련하고, 같은 기간 (7월 29일 - 8월 5일)에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올해 해외 단기선교 멤버는 총 12명이고, 의료/교육/약국/봉사 팀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의료팀: 윤원길, 최연일, 최송자, 김경애, 이정민

교육: Carlina Vdlasquez, Andrew Sanchez, Samuel Sanchez

약국팀: 김애리, 윤만강

봉사: 진정원, 안성완

부족한 선교단원들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곧 선교지로 향합니다. 아래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현지 과테말라 / 뉴멕시코 나바호 부족분들과 단기선교 사역을 위해 (빛진자의 심령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역)

2. 과테말라 / 뉴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김도연, 이덕재선교사님과 가족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3. 선교팀을 위해 (하나됨, 안전, 건강)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한문수 장로

정.평.환 위원회에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브루클라인 타운의 쓰레기 수거 정책의 변화에 따라 타운에서 쓰레기 배럴을 주문하고, 해마다 배럴당 \$300 을 내는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가 된다. 본교회에서 나오는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매주 약 10 개 이상의 배럴을 필요로 하나, 매주 7 개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교회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을 마리아 여선교회, 에스더 여선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건물 관리 위원회, 교인 위원회 등과 상의하여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

(1) 큰 부피의 쓰레기가 나오는 음식 주문을 삼가하고 혹시 주문시에는 Pizza box 등을 **각자의 집으로 가져 간다.** (2) 일회용 컵으로 마시다 남은 커피/차는 액체를 버리고 사용한 컵 모으는 곳에 **차곡 차곡 버린다.** (3) **커피 머그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인다 등을 제안하였다. 이미 에스더 여선교회(회장: 안은신 집사)에서는 음식을 담은 은박 트레이 대신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재활용 트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h3>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방안</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큰 부피의 쓰레기가 나오는 음식 주문을 삼가하고 혹시 주문시에는 Pizza box등을 각자의 집으로 가져 간다. 2. 일회용 컵으로 마시다 남은 커피/차는 액체를 먼저 버리고 사용한 컵 모으는 곳에 차곡 차곡 버린다. 3. 여선교회에서는 은박 트레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 시작. <p>Choice Full Size Standard Weight Anti-Jam Stainless Steel Steam Table / Hotel Pan - 4" Deep</p>
--	---

또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권장 사항으로

(1) 각 구역 혹은 기관의 모임에 **일회용 사용**을 가능한 줄이고, 나온 **쓰레기**는 **각자 집으로** 가져 가는 것을 권장한다. (2) 각 구역 혹은 기관에서 음식을 준비할 시 **1 차적인 준비**는 **각자 집에서** 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도너츠 주문양을 **적정량으로 줄이고** 매주 주문하신 분께서 **도너츠 박스를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심을 권장한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줄이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는 한문수 장로 혹은 안은신 집사나 전현임 집사께 말씀해 주시면 된다.

작은 기적 속에 끝난 2017 보스톤한인교회 서울 코이노니아 모임



지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63년 순례자의 역사 속에서 서로 거쳐 간 시간은 비록 달랐지만 같은 교회를 섬겼던 80여분의 옛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1950-60년대 초창기 사역을 맡으셨던 목사님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장로님들과 제직들, 최근에 귀국한 청.장년 교우들, 어린아이들까지 반가운 만남과 성도의 교제 Koinonia에 흠뻑 젖어 들었다. 40년만에 만나는 해후를 포함해서, 60년 역사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직접 뵈 수 있는, 구순(90세) 어르신부터 유치원생까지 삼.사세대가 모여 정말 오랜만의 기적의 모임을 축복속에 가질 수 있었다.

이 모임은 사실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출간 준비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선배 교우님들과 출간 후 국내 배송을 맡아 주셨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그만 자리였다. 마침 이영길 담임 목사님도 4월 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 PC(USA)의 서울 총회에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어, 다른 몇 분의 교우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 초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다른 옛 교우들도 초청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연락처를 아는 모든 옛 교우들께 초청장이 나갔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 예상을 초과한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오후 5시 부터 모인 교인들은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고, 5시 반부터 코이노니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일영 장로의 사회와 이성심 권사의 반주로 시작 된 예배는 옛 목사님들이 (이계준, 김영, 김중기 목사님) 예배 순서를 맡아 주셨고, 김한나 권사의 인도로 보스톤한인교회 희년 신앙고백서를 같이 낭독할 수 있는 순서도 가졌다. 이영길 목사는 “희망의 싸인(열왕기하 25:27-30)”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에는 노정선 목사의 식사기도로 알렌관에서 준비한 저녁식사 뷔페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그동안 60년사 발간에

도움을 주셨던 여러 교우 분들에게 감사표시로 작은 기념품 (Boston Red Sox cap)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 작은 음악회 Piano Trio (Violin 류주현, Cello 이영진, Piano 황지연)로 만남의 기쁨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어서 보스톤 한인교회 60년사 동영상 ‘KCB Journey of Pilgrim’ 과 함께 김정선 장로의 간단한 60년사 출간보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이 기적 같은 모임에 어울리는 이양자 교수 작사 동요 “이 세상엔 기적 가득”의 동영상 일부를 감상하였다. 이어 초창기 보스톤한인교회의 사역을 도왔던 김동길 교수가 바쁘신 중에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하셔서, 귀한 옛이야기와 덕담을 해주셨고 이에 감사의 표시로 Boston Red Sox cap을 또한 증정해 드렸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석자들을 한분 한분 테이블 별로 소개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9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단체기념촬영 시간을 갖고 아쉬운 폐회를 했다. 참석자 모든 분들이 이 첫 모임에 상당한 호응을 보이셨고, 매년 모임을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의견들도 수렴 되었다.

원래 코이노니아 모임은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옛교우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익명의 독지가가 뷔페 저녁 비용을 모두 지불해 주시며 사랑을 베풀었고, 모임 회비 전액 및 후원금(150만원)을 보스톤한인교회에 헌금을 해주셔서 오히려 크게 섬김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간 텀블러)을 증정하였다. 또한 모든 참석자에게서 받은 등록용지에 의해 서울 코이노니아 Directory를 다시 update 해서 이메일로 배부 할 예정이다.

보스톤한인교회에서 감사 기념품을 드린 분은 이일영/강경희 장로 부부, 김장환/이양자 교수 부부, 김옥주/조성일 교수 부부, 최정열/최미남 집사 부부, 김동환/이혜승 부부, 한기훈 교수, 이해영 교수, 송근준/홍경화 부부이다.

보스톤한인교회 서울 코이노니아 모임을 위한 준비 위원으로 서울에서는 이일영 장로, 이양자 교수가 수고를 했고, 보스톤한인교회에서는 김정선 장로/조순래 권사, 김영범 장로/고경아 권사, 조준호 장로/김한나 권사가 수고를 했고, 옛 교우 연락에 박기춘 권사의 협조가 있었다.



참석자로 부터 온 이메일:

- “지난 토요일 보스톤 한인교회 서울 모임은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40여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놓은 듯 젊은 날의 자신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기회이었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이후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를 통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을 준비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김 구, 윤수정 드림”

- 수고해 주신 덕분에 옛 교우 분들도 만나뵙고, 역사 깊은 보스톤한인교회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이었습니다. News Release와 사진들 감사합니다. - 전취신 (Mrs. 홍성웅) 드림
-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영
- 이메일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도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가지셨다니 감사하고 또 참석 못한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혹 내년에도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 장속경 드림
- 은혜로운 옛 추억의 회상과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었군요. 축하합니다.
-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의선교사 원우현
- 하나님의 축복속에 소중한 만남에 동참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장로님과 많은 분들의 노고가 이처럼 큰 결실을 맺게 되는군요. 작은 인연들이 모여 이처럼 긴시간 지난 후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모두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자랑스럽고 가슴 부듯했습니다. 일선에서 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 계경채 드림

보고: 김정선 장로, 김한나 권사, 이양자 교수 2017.5.10.

예배예술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1.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 일간의 기도회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회를 위해 수고 하신분: 교역자님들과 안성완, 최학수, 이성희, 고경아, 이성숙, 광서형
2. 3/25: 쉼의밤. 주제: ‘내 형제요 자매요’ - 신임 안수 장로, 집사들의 소개
3. 4/1: 제직수련회. 강사: 조문길 목사 (PCUSA 한인목회실)
주제: “미국장로교 제직의 서약과 그 의미”
4. 4/14: 성금요일 음악예배-1,2 부 연합 찬양대의 포레 ‘레퀴엠’ 연주
5. 5/26: 쉼의 밤, 주제: 선교

홍보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홍보위원회에서는 교회 web site 의 대부분의 정보 내용을 update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update 하고자 원하시는 부서는 새로운 부서장의 내용을 홍보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소식

집사회

회장 손영권 집사
홍보부장 정유미 집사

1. 4월 1일 제직수련회 식사준비: 집사회에서 준비해주신 정성어린 식사교제로 시작된 제직수련회에 신임제직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분. 한분. 고민하면서 겸손하게 서리집사직을 받아들이며 한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2. 4월 8일 봄맞이 교회대청소: 집사회 주관으로 추운 겨울동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성전내부는 물론 외관까지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로 닦아내어 말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방은 사모님과 에스더 여선교회. 여 집사님들께서 맡아주셨고 주방 창고는 부부청년부 회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집안 청소도 미루고 땀흘려 봉사하고 함께하는 점심은 꿀맛이었습니다. '손 하나가 무섭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서로 힘을 합치니 어렵지 않게 대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대청소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3. 5월14일 어머니주일 식사준비: 어머니 주일예배를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집사회에서 기쁨으로 준비한 400명분의 카레라이스로 점심 한끼를 함께하면서 삼세대가 화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4. 제직회비: 지난 4월부터 제직회비(1인: 30불/2인(부부): 50불)를 걷고 있습니다. 집사회 전재완 회계님이나 손영권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여름(6.7.8 월)♣

5. 6월 25일(일): 상록회 야유회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Larz Anderson Park에서 어르신들의 즐거운 나들이가 되시도록 집사회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7월15일(토): 단기 선교단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약포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



해주세요.

7. 8월6일(일): 청년1,2 부의 점심을 준비합니다. 소박한 한끼를 함께하면서 주님안에서 풍성한 교제 나누길 바랍니다.
8. 8월27일(일): 노숙자 식사 제공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집사회 운영권 회장님이나 정유미집사(홍보)에게 알려주세요.

상록기도회

회장 김형범 장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중에서 65 세 이상인 분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록기도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미 권유를 받은 분이나 받지 못한 분이라도 지체없이 주저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나 임원에게 가입 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1 년에 \$30 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1 부 예배 후 101 호실 (베드로 성경공부반)에서 열리는 월례회는 식사와 친교를 마친후 초빙된 강사님의 20-30 분정도의 강의를 듣습니다. 식사는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 자원하는 성경공부 구역, 부서, 가정 등 에서 제공합니다. 1 년에 한번은 pot lock 으로도 합니다. 식사시간에는 회원은 물론 교역자, 강사, 구역식구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로 매우 붐빕니다. 우리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흐뭇하고 기특하고 고마운 일 입니다.

3 월 월례회에는 부회장 정명상집사/강영숙 권사님 가정이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4 월 월례회는 4 월 23 일 주일에 열렸습니다. 식사는 전 부회장 엄인숙 집사님이 팔순생신을 맞아 자녀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주었고, 상록기도회에서는 축의금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엄 집사님은 그것을 선교헌금하셨다고 합니다. 김건철 목사님이 신명기 8 장 11 절-18 절의 성경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5 월 월례회는 5 월 21 일 주일에 열렸습니다. 식사는 이번에 남서구역으로 명칭이 바뀐 전 남서구역(구역장 정영화 집사/홍도화 집사)에서 많은 구역식구들이 참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과의사인 채진병 집사님이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5 월 14 일 어머니 주일 찬양제 때에 남선교회 (회장 지훈 집사)에서 정성껏 선물을 마련하여 모든 우리 회원에게 주었습니다. 찬양제에 참가하여 받은 상은 참가한 회원에게만 주었습니다. 찬양제에서 노인을 공경하여 내일의 주역이 될 어린 새싹 유치부, 유년부 보다 우리에게 먼저 순서를 갖게 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6 월 월례회는 6 월 25 일에 열립니다. 집사회 (회장 손영권 집사)의 주관, 후원으로 1 부에베 후에 Brookline 에 있는 Larz Anderson Park 에서 야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집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노인들인 만큼 힘든 운동이나 경기보다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노래부르기 등을 하려고 합니다.

권사회

회장 김정림 권사

권사회에서는 지난 4 월과 5 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4 월에는 코네티컷 에서 열린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에 이숙재, 김한나 권사가 참여하여 후원금 \$300 을 전달했으며, 한국에서 열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에 김한나 권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보스톤한인교회 옛교우 모임인 'KCB Seoul 코이노니아' 모임에 박기춘, 조순례, 김한나, 고경아 권사님들이 참석하여 행사준비를 돕고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5 월에는 교육 1 부(유년. 초등주일학교 Sunflower & 중고등부) 교역자 및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찬을 대접하였고, 6 월에는 Greensboro, NC 에서 열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총회에 김한나 권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석 하였습니다. 또한 70 세 이상의 상록기도회원 및 권사님들께 생신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병환중인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care-card 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사회에서는 성찬예식을 위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에스터 여선교회에서는 지난 3개월동안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4 월에는 집사회 주최로 열린 교회 대 청소와 함께 참석하여 1 층과 지하 부엌의 많은 묶은때를 벗겨내고 케비넷과 물품 창고를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부엌을 반짝하게 빛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특별 다과로 계란 450 개를 삶아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5 월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주일 찬양제를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찬양제때는 특별히 조유미 집사님과 함께 네분의 목사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셨고, “열정상, 성령충만상, 상남자상, 애국상, 인기상, 아이디어상, 찬아돌상” 등등 여러가지의 다양한 상으로 많은 구역과 부서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6 월에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교회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 에스터 여선교회에서 일회용 포일 트레이를 스테인레스로 바꿉니다. 부엌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부서들이 많아짐으로 여선교회에서 다과와 교회행사를 위해 에스터 여선교회 회비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물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부엌과 부엌 용품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1 층 부엌의 고장난 오븐을 고쳤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안에 있는 주방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방을 쓰실 때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과 타주로 휴가를 가시는데, 언제든지 2 부 예배전 부엌에 오셔서 함께 다과 준비도 하고 주님의 자매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전현임 집사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덧 반년이 후딱 지났네요. 처음 시작할때는 언제 일년이 지날까? 했는데 함께 팀이되어 열심히 도와주신 마리아 임원및 회원 집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4 월에는 교회 대외 행사로 7(금)-8(토)일에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김한나 권사, 이숙재 권사, 이선영 장로, 이혜원 집사가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5 월에는 보스턴 노회 정기 모임을 본 교회에서 가졌는데, 이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정성껏 대접해 드렸습니다. 마치 집에 모시는 손님 대접같은~~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임원들과 모든 제직들의 수고와 정성과 기도로~~

8 월 18-19 일은 미동북대회 여선교회 Triennial Gathering 이 Albany, NY 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경애 /김한나 권사께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지남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복이라 여기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마리아 여선교회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어 모두들 평안한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혜원 집사

지난 2017년 4월 7일에서 4월 8일까지 저는 이숙재 권사님, 이선영 장로님, 김하나 피택 장로님과 함께 커네티컷 주의 모리스(Morris)시에 위치한 캠프 와싱턴에서 열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성교회 동북대회연합회 (KPW/SNE), 동부한미노회 연합회 (EKPW)의 제 28 회 2017 년 연합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바닷가 버클리 시에 위치한 이선영 장로님택에 모여서 김하나 피택 장로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보스턴에서 4 시간의 여정에서 바다, 강, 호수 또 산을 넘어 커네티컷 산속에 위치한 캠프 와싱턴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바람의 노래와 숲의 소리, 새들의 노래와 아름다운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의, 또 캠프 와싱턴 스태프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이틀이 너무도 짧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펜실바니아 등지에서 개개인의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20 여명의 여성교회 리더들과 친교를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눌 때, 또 동향이라 더 반가운 보스턴의 최희안 목사님의 인도 아래 “용서 그리고 리더쉽” 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7:1-11 과 45:7-8 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강의에 참여하면서 “참 귀하구나. 한국여성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현역에서 섬기고 계신 40 대에서 80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아름다움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80 이 넘으신 여자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새신부 때 젖먹이 아이를 안고 시댁에서 쫓겨나셨다가 한 달후에야 겨우 시아버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셨던 옛 기억 ...

벌써 몇년 째 수백명의 점심 식사를 한국음식으로 매주일 예배 후 직접 만들어 대접하시는 뉴저지의 한 교회의 권사님들... 미국 사회속에서 각자의 사업과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친척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느라 일년에 이 연합수련회를 위한 단 이틀을 빼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크리스찬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미래에 저분들을 닮고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연합 수련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에...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와 다른 한 집사님만 40 대였고 다른 분들은 모두 연령대가 50-80 대의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각각의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 귀한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교회와 사회에서 특히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교차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하여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사랑이, 또 서로에게 주는 관심과 돌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함께 가요. 남선교회 연합수련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부부청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미국장로교의 평신도 수련회인 Big Tent ...

수련회에 오고가는 길에 운전으로 수고하신 김한나 장로님, 이선영 장로님 두분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장로님 택에 들러 남편되시는 신광성 집사님께서 요리하신 떡국을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과 따뜻하고 멋진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남선교회

회장 지훈 집사

지난 4 월에는 담당구역인 교회외곽을 청소하고, 아울러 지난 임시총회에서 예고해 드린대로, 낡아져 철이 벗겨진 교회현판의 샌딩과 퍼딩 작업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월29일에는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Braintree Municipal GC에서 가졌습니다. 겨우내 새 단장을 한 브레인트리 골프클럽의 최상의 컨디션에서, 숨은 골프실력을 겨루며 모두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 해 처음으로 시도 해 본 칩핑

콘테스트도 참가자 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흥미 진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챔피언은 게스트로 참석하신 김중연 장로님이 차지하였고, 박찬훈, 최연일, 김문소 장로님이 각각 1,2,3등을 차지하는 등 시니어의 놀라운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스낵과 커피를 준비해 주신 이유택 장로님과,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준구 집사님, 홀스폰서를 해 주신 최연일, 이문영, 안태준 장로님과 최정열, 지훈 집사님, 특별 후원금으로 도와 주신 권복태, 김문소, 조준호, 김옥식, 안성완, 엄재관, 이정규, 이정민, 이유택, 한문수 장로님과 김준구, 김진기, 방경남, 손영권, 손우성, 이경환, 이원걸, 이창호, 정광근, 정현석, 홍성일 집사 및 교우님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액 3,150 불을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지난 5 월 7 일 (주일) 에 있었던 어머니 주일 찬양제에서는 멋진 남성중창으로 박수를 받았고, 상록회 어르신들께 선물도 증정하였습니다. 참여하고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 월 3 일 (토)에는 남선교회 주최 낚시대회를 Hyannis 있었습니다. 삼세대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번 대회는만선으로 더 풍성하고 기쁜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 하신 조준호 장로님과 최정열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달 6 월의 중요 행사로 24 일(토) 오전 9 시 부터 남선교회의 담당구역인 교회외곽의 청소와 옷자란 수목의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전 기도회가 끝나고 조식을 함께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5 일 (주일)에는 보스톤 쉼터에서 봉사활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한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남선교회가 올해의 표어처럼 ‘주님의 기쁨’ 이 되도록, 회원님들의 더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주일 찬양제

심사위원장 조유미 집사

호흡이 있는자 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시 150:6)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약기로든, 우리의 몸으로든 혹은 우리의 목소리든 상관없이 찬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해 냅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 없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을 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함께 소리를 맞추며 서로 다른 파트의 소리와 맞추느라 때로는 내 소리를 크게, 때로는 작게 내며 상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배려했을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본 악보로 어색하게 시작한 찬양이 한번, 두번, 세번... 연습을 통해 각자의 고백이 되었을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무대에 나와 수줍게 찬양하시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해바라기 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의 찬양은 하늘에 닿고도 남을 만큼 맑고 우렁찼습니다.
유스 그룹의 댄스는 열정이 가득한 그들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부의 찬양은 수줍게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부부청년부의 찬양은 가장 힘든 시기일 것이나 모든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했습니다.
상록회분들의 찬양은 그저 찬양 하시는 모습을 바라봄이 은혜였습니다
남선교회는 보기에든 듣기에든 기분 좋은 멋진 하모니에 감동했습니다.
구역의 찬양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는 진지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었던 시간들에 감사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

담당교역자 김수영 목사

매년 어린이들의 방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 월 26 일 월요일부터 29 일 목요일까지 우리교회 본당과 친교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먹고, 경험하는
잔치입니다. (매일 저녁 5:00 - 7:30pm) 올 해에도 신나는 율동과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으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예배와
배움의 시간들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3 세대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탁구
게임을 인도해주시는 권복태 장로님부터, 주방에서 매일 저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학부모회 어머님들과, 어린이들의 교사로 도와주시는 청년부원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3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길과 기도가 모인 여름성경학교가 해바라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뜻 깊은
행사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지요. 일년 내내 여름성경학교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특별히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기념한 티셔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일도, 어린이들의 기억을
돕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 반팔 티셔츠를 보스톤의 추운 겨울에도 주일이면 입고
오던 어린이들이 많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안나 집사님께서 티셔츠 디자인과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작년부터 시작한 마지막 날 저녁의 ‘Empowering Prayer’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의 곁에 오셔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사랑이 자라나기를, 힘과 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잊기 어려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랑으로 빛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배우고,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다섯 가지의 소주제들을 25일 주일예배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며, 매일 매일 말씀과 찬양, 만들기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준비가 있더라도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알기에, 주일학교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영길 목사님의 한 설교에 영감을 얻어, 우리는 이 기도회를 3년째 ‘칩칩 기도회’ 라고 부릅니다(“칩칩” - 칠면조의 새끼가 어미의 보호를 이끌어내는 소리의 의성어). 매일 저녁 9 시에 각자의 장소에서 잠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울타리 소식지를 읽으시는 교우님들께서도 오늘 저녁 9 시에 시간이 되시면 잠시 하나님께 해바라기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칩칩 소리가 하늘에 닿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중고등부에서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3/14/17 에 2년동안 섬기시던 강원택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이번 transition 통해 여러 부모님들께서 중고등부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학생들도 더 단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도사님을 찾는 동안 자매 교회의 Sam Chung 부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매주 설교를 해주시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QT 책을 구입해서 QT 도 하고, 찬양과 기도로 매주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의 기도는 하루 빨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중고등부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부모님들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주십니다. 전도사님 candidate 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한 분을 주시기를 믿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11/17 어머니주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멋진 율동과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감동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6/11/17 에는 중고등부 졸업 파티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학생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이호석과 노신지 학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호석 군은 6 학년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에 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한지 얼마되지 않지만 대학교를 가기 전에 영접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노신지 양은 출석한지 2년을 넘었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기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대학교에 가서도 중고등부에서 갖은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걸어나가길 기도합니다.



쉐마의 밤



{3월 쉐마의 밤}

“내 형제요, 자매요” 라는 제목으로 3월 25일 토요일 밤에 ECC에서 쉐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2017년 첫 쉐마의 밤이고 신임 제직분들이 함께하시는 시간인지라 예배예술위원회 산하 쉐마준비팀이 연초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충성으로 무장하신 신임제직들의 헌신을 통해 또 하나의 멋진 쉐마의 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촛불 점화는 신임 장로/집사 대표로 강상철 장로님과 장봉준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쉐마 찬양단의 준비 찬송은 모든 이의 마음을 예배로 모으고 쉐마의 “밤”의 아름다운 정취에 빠질 준비를 하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서는 특별히 민화를 그리시는 정선재 교우님을 통해 한국 민화의 특징과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직접 그리신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시고 소개와 함께 그에 얽힌 스토리를 통해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과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투영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임제직의 특순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 입니까?” 라는 제목의 스킷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세대 가족의 삶을 재밌게 구성한 에피소드를 통해 연기력과 열정을 쏟아 놓으신 제직분들..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한꺼번에 선사하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3세대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강상철 장로님의 소개는 이해승 집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강 장로님의



100 가지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겸손”, “만년청년”, “본보기 크리스찬” 등의 키워드는 강 장로님을 대변하는 언어로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찬양대 여성중창단의 멋진 하모니의 아카펠라 송을 통해 김한나 피택 장로님의 아름다운 내면을 소개하였습니다. 김경애 권사님의 소개를 통해 보여진 김 피장님의 본교회에서의 40 여년간의 활동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경남 피택 장로님은 남선교회 중창단의 울림있는 추천송과 시작하여 정광근 집사를 통한 추천사로 마무리 되었는데, 방 피장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는 피장님들. 앞으로도 함께 어머니교회를 멋지게 섬겨 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히, 안동교회에서 90 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필사하시는 최의숙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순 준비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쉼의 밤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신 신임제직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월 쉼의 밤}

먼저 담임 목사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5 월 쉼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쉼의 밤의 주제는 “선교” 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국내 및 해외 선교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통해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한 교회 차원의 노력과 각 선교위원회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쉼의 밤을 위해서 쉼준비팀은 총 3 차례에 걸쳐 준비모임과 함께 기도로 쉼의 밤을 준비하였고 그 기간 중에 쉼팀의 장양술 장로님의 생신과 교인위원회의 이문영 장로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쉼 찬양단은 새로운 보컬 멤버를 보강하여 한층 은혜로운 준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 인도 김수영 목사, 보컬 정광근 집사/김영은 자매, 반주 정은아 집사, 바이올린 안유진 자매, 드럼 안성민 형제가 수고하십니다.

국내 선교위원회는 “우리를 엮드리게 하시는 주님” 이라는 주제로 멋진 skit 을 다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작년 앨버커키로 국내선교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주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통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자동차와 견인차량까지

동원하여 멋지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나바오 선교팀의 공연은 “One Way Jesus” 라는 곡명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쓰그룹 선교팀 화이팅!

이어서 2017 년 선교테마송인 “아버지의 마음” 을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부르시는 해외선교팀의 모습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경문 목사님께서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라는 주제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는 파송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주제 말씀은 비단 선교를 떠나시는 지체들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몸과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써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든 선교팀을 위해 쉼마 준비팀은 선교 서포터들과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부제: 예배자)” 라는 곡을 합창하면서 뉴멕시코와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나시는 국내/해외 선교팀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 한분 한분의 발과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길 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보혈로 덮여지고 이 땅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매번 쉼마의 밤의 식사를 위해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승희 장로님, 이선영 장로님, 안성완 장로님, 정재원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그리고 정광근 집사님의 정성으로 맛있는 불고기 덮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쉼마의 밤 저녁을 위해 도네이션하실 교우님들은 정광근 집사 (617-777-4213)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신정욱/최윤희 교우

봄이 시작되는 4 월 부부청년부는 지체나눔(정신영 형제)과 형제/자매 모임, 그리고 베이비 샤워(송경수/사공수인, 최정규/심진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서로 더 알아가고, 또한 축하하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출생: 송경수/사공수인: 송이안, 최정규/심진희: 최아현

가정의 달 5 월은 “성령과 함께” 라는 주제로 김건철 목사님의 설교말씀 및 어머니주일 찬양제와 교육 2 부 연합 야유회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찬양제에서 부부청년부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업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그 자체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여 “기쁨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arz Anderson park 에서 청년 1, 2 부와 교체하며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진 야유회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을 떠나는 두 가정(황규라/서정희, 션크리머/이근희)의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헤어짐은 아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청년부를 통해 관계를 맺은 이 가정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지난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떠난 가정의 자리를 채워주듯 새가족(권오빈/정선재)이 부부청년부에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게 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6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부부청년부는 Pilgrim Pines Retreat Center(NH)에서 2017 년 수련회를 통해 함께 친교하며 쉼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주제로 김건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될 이번 수련회가 은혜롭고 귀한 시간되도록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부 찬양대

찬양대장 엄재관 장로

1. 1 부 예배 반주자로 수고하시던 도예인 교우가 학업상 신시내티로 이주하게 됨에따라 지난 5 월 말 부로 사임하게되었습니다.
2. 7 월에 1 부 찬양대 연습실의 바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3. 남자 찬양대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하시는 교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찬양대원의 단합을 위한 여름 파티가 7 월 중에 찬양대장님이신 엄재관 장로님/김용희 권사님 댁에서 가집니다.

2부 찬양대

찬양대장 김영범 장로
총무 이지훈 집사

1. 3 월 18 일: 지휘자 박진욱 집사님이 이끄시는 화음 보스턴 챔버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악기팀에서 수고하는 김현정 교우의 솔로 연주와 그외 여러 멤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한 이번 연주회에 찬양대 식구들과 여러 교우들이 함께 관람하여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 감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 4 월 14 일: 성금요일 찬양예배에 1,2 부 찬양대가 연합으로 포레의 레퀴엠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죄로부터의 해방과 기쁨의 선물을 노래하였는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어우러져, 부르는 자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3. 7 월 9 일: 여름 BBQ 피크닉을 Larz Anderson Park 에서 가집니다. 온 찬양대원이 한데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마라.
2.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마라.
3.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인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마라.
4.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마라.
5.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마라.
6.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마라.
7.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지마라.
8.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마라.
9.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마라.
10.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마라.

새교우 환영반

교인위원회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2017년 3월 12일, 19일, 26일, 3주에 걸쳐 새교우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 및 신앙 간증의 시간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교육을 마치고 2부 예배 후 조준호, 김한나 장로님 댁에서 3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새교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강명성/이영라, 신순균/김준, 김옥식/김경희, 최진민/김해숙 교우님이십니다.

2017년 3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강명성 교우님께서서는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내를 따라 1월에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나 20대에 세례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교육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영라 교우는 현재 신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깊으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앙 3구역 소속입니다.

김옥식 장로님께서서는 20대 중반에 도미하셔서 현재까지 30년 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심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권사님께서서는 할아버님께서 목회자로 계신 집안에서 모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슬하에는 빛나, 하얀, 학민 세 자녀를 두고 계시며 남서구역 소속입니다.

신순균 교우님께서서는 보스턴에 오신지 7년 정도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친분이 있는 여러 교우님들께서 환영해주셔서 교회에 친근감을 가지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김준 교우님께서서는 씨애틀에서 학업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오게 된 남편과 함께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며 성장하셨습니다. 슬하에는 현우, 현민 두 자녀를 두고 계시며, 북서구역 소속입니다.

최진민 교우님께서서는 워싱턴 DC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 때문에 보스턴에 오셔서 정착하신 지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숙 교우님께서서는 유교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서 사순절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면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의 권유로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서 4 구역 소속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통해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